

# 젊은 건축가의 건축적 철학과 그 실천에 관한 의문

- '젊은 건축가상' 수상 건축가를 중심으로 -

The young architect's asking about the architectural philosophy and the his practice

- Focus on 'the young architects award' winning architect -

**박 종 현** | Park, Jong-Hyun

정회원, 경민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강의전담교수

**이 종 열** | Lee, Jong-Ryul

정회원, 경민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부교수

---

## Abstracts

On the recent, Architecture markets appeared new eyes about Architecture. 'Korea Young Architect Award'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the right. The award in this age or in the near future we will meet down the building appear to have opinions about. 2008 to 2012, a group of 21 architects or architectural groups were selected. And they are active to this day.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four indicators for architects throughout the new ideas and would like to provide feedback on them. And this study is estimated to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Forecasting of the construction

First, Young Architect of the thinking process and practice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watch. I think they want to, and philosophy, practice and methods that will be discussed. Second, If you assume that these architects in Korea when new, they a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architects how diverse, and how about that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examines. Third, Not only in Korea but also targeted at young architects in the United States, one organized by the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 'Architectural League Prize for Young Architects' have been awarded. This group of four architects selected as Korea becomes, which of them through the research architect Yang sooin architects in the United States, you want something new will be discussed. Finally, Similar to those in the past, architects Guess watch. Find out about and how different.

---

## Keywords

Korea young architect,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 4.3 group

## 키워드

젊은 건축가, 뉴욕건축연맹, 4.3 그룹

---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젊은 건축가상’이 그것이다. 이 상은 이를 통한 이 시대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접할 건축에 관한 소고를 내보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5년간 21그룹 정도의 건축가 혹은 건축그룹이 선정되어 그 중심에 서 있다.<sup>1)</sup> 그리고 이 선정 건축가 혹은 건축그룹들은 현재까지도 활발한 건축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석지표를 통하여 이러한 건축계의 신진 바람을 일으키는 건축가들에 대한 고찰과 그들에 관한 소고 및 건축계의 발전과 향후 전망을 관측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시대 젊은 건축가들의 사고과정과 실천방향을 분석해 본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과 철학, 그 실천과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들을 대한민국 신진 건축가라고 명명하여 본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들이 기성 건축가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다양하고, 어떻게 차별적인 건축적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젊은 건축가들의 태도와 행위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성 건축가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필 필요도 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선과 의견들이 오갔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좀더 명확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뉴욕건축연맹이 주최하는 ‘젊은 건축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곳을 살펴보면 몇몇의 대한민국 건축가들도 선정이 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조민석(매스 스튜디오), 양수인(삶것 건축), 양성구(Ethership), 나은중과 유소래(네임리스)가 바로 그 수상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중 건축가 양수인을 통하여 미국에서 원하는 신진 건축가상(象)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이들과 유사한 건축세력이 존재하였는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4.3 그룹’이라는 건축가 그룹이 있었다.

1) 2003년부터 이러한 상을 수여하긴 하였으나 ‘젊은 건축가상’이라는 정식 제도로서는 2008년이 시작이다.

이들 역시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 말하고자 하는 이른바 ‘젊은 건축가’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이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영향 등을 현재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을 비교해 본다면, 이 젊은 건축가들을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젊은 건축가상’에 선정된 건축가 그룹들이 과연 어떠한 면모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건축가적 철학과 실천방법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고 비평하였을 때, 가까운 미래 한국 건축계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젊은 건축가들의 철학과 실천에 관한 방법을 탐구한다. 따라서 선정된 21그룹의 건축가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4그룹을 선정하여 이들을 초청하고,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해 이들의 작품 철학과 건축 프로세스, 실천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토론해 본다. 또한 미국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건축가질 비평 지표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젊은 건축가의 위치와 방향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

젊은 건축가 상은 2008년부터 진행되었으며, 5년간 총 21그룹이 선정되었다. 이들 중 ①조호건축(JOHO Architecture)의 이정훈과 ②바우건축(BAU Architects)의 권형표, 김순주, ③아틀리에 리옹 서울(Aatelier Lion Seoul)의 이소진, ④와이즈 건축(WISE Architects)의 장영철, 전숙희 이렇게 4그룹을 선정하여 이들만의 건축적 철학과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건축가상을 수상한 ⑤삶것 건축(lifethings)의 양수인 건축가 역시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또 다른 연구의 지표로서 미래로의 건축계 향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1 조호건축 (JOHO Architecture) - 이정훈

조호건축은 서울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리 와 런던의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건축조직이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질의 디자인 노하우와 테크

닉을 공유하며 실현과정 속에서 이를 상호 접목시키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한다. 이정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비움을 내재한 채움 즉, 가감의 논리를 이야기한다.

주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내는 틀을 사고해야만 한다. 형틀은 채움의 대상을 비움으로써 만들어 진다. 이는 곧 비움을 전제한 채움, 거꾸로 채움이 곧 비움이 되는 탈 이분법적 사유의 시작점이다. 채움 혹은 비움의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닌 이 두 개의 상반된 개념들이 탈 의미화 되는 그 지점에서 가감의 전략은 생성된다. 가감법을 통한 건축방법론이란 채움을 전제로 한 비움이 아닌 비움이 내재된 채움으로서의 접근을 통해서 파생되는 공간의 특이성에 관한 것이다. 건축역사 속에서 발전되어온 공간에 대한 채움과 비움에 관한 이분법적인 접근과는 달리 두 가지의 양립 불가능한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을 전복시킴으로서 새롭게 건축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몇 가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접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비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조건적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도시의 범규에 자본 증식의 논리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간에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인문학적인 인식의 전환인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움은 건축공간을 구축하는 중요한 논리였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원하는 공간을 생성해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생성방식이었다. 비단 그것은 종교적인 감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기능적으로 최선의 방식을 추구한 전략적인 대안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비움에 대한 구성법의 논리는 현대적 공간의 구축 방식의 성립과 더불어 공간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의 축으로 이해되곤 하였다. 역사속에서 비워냄이란 비워냄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 즉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간은 채움으로서 생성되는 공간 구성과는 차별화된다.

주물을 통해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태를 비워낸 주물틀을 사고해야 하며 역설적으로 그것들의 비워진 형틀 속에 채워진 형태가 생성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건축철학을 통하여 이정훈은 프랑스에서 건축이론 석사를 받았다.



그림 1. 조호건축의 대표작들  
 <左上: Namhae House Remodeling, 右上: Korea Presidential Archives, 左下: Herma Parking Building, 中下: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in Seoul, 右下: Trash recycling center>

그리고 각종 국제 컴페티션에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서울 국립 현대미술관(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in Seoul, 2010)<그림 1, 中下 참고>이나, 프라하 국립 도서관(Prague National Library, 2006) <그림 2 참고>의 경우 그 철학이 외피와 형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 프라하 국립 도서관 (Prague National Library), 2006

그러나 이정훈 건축가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수행한 작업들에서는 그의 건축적 철학을 살피 보기란 쉽지 않았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 건축가는 헤르마 주차장을 통하여 2010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여러 대중매체나 문헌들에서 이 작업이 완성되기 위하여 대한토지공사와의 관계, 주차장 건축에 관한 경제적 가치부여, 입면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종 3D tool을 활용한 실현 작업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업은 물론 기존 건축 프로세스와는 다른 독특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가 이야기하는 ‘가감법’이나 ‘잉여’의 철학적 논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젊은 건축가상’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평 역시 살펴보면 대략 ‘도시와 건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가로서 꾸준한 고민이 엿보인다.’는 내용이였다. 즉,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건축적 테마를 가지고 끈기와 인내력으로 실천하는

모습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건축가의 자질에 관하여 그 자체를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만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건축을 실현하는 모습은 매우 훌륭하고 흥미로웠다. 그렇지만 그만의 철학을 보다 균일하고 고집있게 작품에 투영되는 모습이 아쉽다. 더불어 신진건축가로서 기성 건축가들 보다 차별적인 건축적 맥락이나 실천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2.2 바우건축 (BAU Architects) - 권형표, 김순주

바우 건축이 행하는 건축행위들은 도시적 컨텍스트를 철저히 분석한 후, 이에 순응하는 행위를 실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금천 퍼블릭 룸 현상설계’나 ‘파티오 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김순주 소장이 학생 시절 계획했던 ‘강원 사북 프로젝트’등이 그러한 실천적 행위의 증거들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바우 건축의 여러 작업들 중 ‘천안 민속주 체험관 및 춤 주제관(이하 흥 뮤지엄)’의 경우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계획안은 타의에 의하여 대지가 옮겨지는 불운을 겪었다. 무려 3번에 걸쳐 대지가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설계 변경 계획안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와 프로세스를 이루어 내고 있다.<그림 3 참조> 살펴보면 처음 당선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적 컨텍스트에 의해 구성된 형태를 따르고 있다. 즉, 변경된 대지에 따른 대지형태 및 크기, 흐름, 볼륨 등을 디자인적 방향성의 데이터로서 활용하고, 이에 최대한 순응하는 형태와 입면, 마스터플랜 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천안 민속주 체험관 및 춤 주제관(흥 뮤지엄)  
 <① 당선안, ② 두 번째 안,  
 ③ 세 번째 안, ④ 네 번째 안>

이 시점에서 바우건축이 행하는 작업과정들을 면밀

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비단 바우건축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불과 최근까지 건축의 형태는 바우 건축이 행하는 건축 프로세스와 같이 도시적 컨텍스트를 통한 개연성이나 맥락성 등은 찾기 힘든 물성과 조형성이 편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한 형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폼지나 라이노와 같은 프로그램이 엄청난 유행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번져나갔고, 그랙 린이나 자하하디드의 작업과 같은 디지털 솔루션에 기인하는 건축이 득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건축세대일 법한 젊은 건축가인 바우건축의 프로세스는 데이터화된 컨텍스트를 따라 구축해가는 텍토닉적 건축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건축 프로세스는 사실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학에서 익히고 배우는 건축설계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그 10여년 간의 조형성을 갖는 프로세스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 과정의 건축은 기성 건축가들(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젊은 건축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기성 건축가의 시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신진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후에 언급할 삶짓 건축의 양수인 건축가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세미나 질의를 하였을 때, 바우건축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인 부담과 한계를 극복하기엔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다.’이다. 예상한 바대로 이는 실무과정을 통하여 본인들만의 건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현실의 벽을 실감한다는 목소리였다.

## 2.3 아틀리에 리옹 서울 (Aatelier Lion Seoul) - 이소진

서울에서 공공건축에 관한 프로젝트는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원 동탄과 성남 판교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대중이 생각한 만큼 부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와 회의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건축적 화두는 공공 프로젝트가 많이 나타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것이 곧 공공 프로젝트의 관점으로 서울의 주요 지역들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 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도시재생에 관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운동주 문학관’으로 2012년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한 아틀리에 리옹 서울의 이소진 소장은 한강 나들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소진은 30여개의 나들목 프로젝트 중에서 ‘금호 나들목’과 ‘마포종점 나들목’을 작업하게 되었는데, ‘마포종점 나들목’ <그림 4 참고>은 기존의 터널형 나들목을 제공받아 디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토목 엔지니어링에서부터 시작한 신설 나들목이었으며, 따라서 여타의 나들목들처럼 차수벽이나 육갑문으로부터는 자유로웠다.

또한 마포대교 북단을 통해 이 나들목에 다다르면 직선 계단형 수직동선과 함께 나선형태의 램프가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 중정은 자작나무를 통해 정원을 꾸미고 있다. 램프를 통해 하위레벨 나들목으로 진입하면 한강 둔치로 통하는 터널이 나타나고 둔치로 갈수록 터널의 폭은 넓어져 한강의 동선 흐름 유도과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흥미로운 것은 우기에 나타나는 한강 수위 범람에 대한 디자인적 태도이다. 한강의 수위 범람 시 자연스레 나들목으로 물이 차올라 사람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그림 4 右下 참고>



그림 4. 한강 르네상스 - 마포나들목

이소진 소장이 갖는 젊은 건축가로서의 가치는 조금 남다르다. 이소진 소장 본인은 젊은 건축가이기에 나이가 많아 숙스럽다고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축에서 일어나는 공공건축의 맥락을 읽는 시선이 기성 건축가들과는 다른점으로 보인다. 물론 건축가가 프랑스 유학을 통하여 수학한 리옹의 도시읽기가 전반적으로 투영되어 비추어지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건축가에게 젊은 건축가상을 수여한 가장 큰 부분으로 판단된다. 특히 운동주 문학관에서

는 지형의 흐름과 공간에 대한 깊이있는 사고, 그리고 우연한 발견을 통해 더욱 그 본질의 색채를 강화시키는 모습은 이채로웠다.

## 2.4 와이즈 건축 (WISE Architects) - 장영철, 전숙희

와이즈 건축은 일상에서 소소한 작은 것에 주목한다. 단순히 작은 건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 담긴 가치를 크게 보자는 것이다. 작은 것은 사람의 일상이라는 맥락에서 존재한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고자 하는 작업이 와이즈 건축이 지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프로젝트의 가치는 일상성에 있다. 다시말해, 보통으로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나 건물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그러한 점이 건축가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비단 건축가라 함은 거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문가적 의용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게 쓰임이 있는 디자인 작업들이 더욱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5 와이즈 건축 프로젝트  
(左: 연세대학교 ‘이정일 강의실’,  
中: 서촌 골목문화 작업실, 右: 포이동 원두막)

와이즈 건축은 일상의 작은 실천이 실현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짐을 강조하였다. 그의 일환으로 ‘이상의 집’에서 실현한 ‘모바일 갤러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과거 공모전에 도전하여 실패했던 개념으로 이 서촌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시 행위를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이것이 포이동 원두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작은 실천의 연속으로 스스로의 작업과정과 방향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와이즈 건축 초청 세미나는 강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젊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일까? 와이즈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소한 일상성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몇 되지 않는 건축가라는 것이다. 직접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며 작업들을 실천하는 모습, 동시에 각종 전시와 사회적 참여

를 통하여 도시건축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모습은 진정한 건축쟁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더욱 귀감을 갖게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다.

### 2.5 삶것 건축 (lifethings) - 양수인

양수인은 뉴욕건축연맹이 주최한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한 건축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루어 낸 작품으로는 최근에 준공한 남해의 소술집<그림 6>이 가장 대표작이면서 유일하다. 그러나 공공예술 작업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양수인이라기 보다는 공공예술 작가로서의 양수인이 더욱 어울려 보이며, 스스로도 이러한 작업과정들 때문에 작가의 명함을 함께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양수인을 언급하는 이유는 젊은 건축가라는 동일 카테고리에서 대한민국 기성건축가의 시선과 미국 건축가들의 시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가정은 앞서 바우건축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신진이라고 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되어 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이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작품과 건축가들의 이면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수인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대다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건축가로서 건축 작업 보다는 공공예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건축가 스스로 보다 분명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력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양수인은 상당수 미국에서 작품들을 발표하였고, 뉴욕건축연맹은 바로 이 점을 젊은 건축가로서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시사회에서 기인하는 참여적 자세와 실천으로 또다른 사고를 발현해 가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프로세스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 심천의 'Street Life 街道生活'나 미국 뉴욕의 'Amphibious Architecture'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양수인은 이에 그치지 않아 한국에 들어와서도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시청에 있는 '여보세요'와 청계광장에 설치되었던 '있잖아요', 상암에 설치한 서울의 대기를 실시간 정보체계를 통하여 조명으로서 표현하던 '리빙라이트;' 등이 그것이다. 결국 이 시대가 원하는 건축의 프로토타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건축가의 다채롭고 창발적인 디자인 경향과 그 사고 과정을 현실화 하는 직접 실천의 과정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양수인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左: 시청 앞 '여보세요', 中, 청계광장 '있잖아요', 右 상암 '리빙라이트')

### 3. 4.3 그룹과 현재 젊은 건축가의 비교

4.3 그룹은 외부의 힘을 과시하는 이익집단이나 운동집단이 아니라 회원들끼리 공부하고 각자의 작품을 크리티크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집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자체 건축가세미나 24차례(그 중 외국건축가, 인문사회분야, 인접 문화예술분야 인사초청 강연 7차례), 해외건축기행 6차례와 관련 세미나 매기행마다 3~4회, 그리고 전시회(이 시대 우리의 건축, 1992.12.12. 인공갤러리)와 책 두 권을 발행하면서 스스로 자기참조적 활동들을 행하여 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지적사유가 점점 더 축적되어 갔고 이러한 흐름은 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거치고 서울건축학교에 이르기까지 4.3 그룹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현재 젊은 건축가들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4.3 그룹은 전시회와 책, 포럼 등으로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실천하면서도 4.3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명명할 만한 실질적인 건축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조성룡이나 민현식, 송효상 등과 같은 건축가들은 개개의 건축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건축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의 건축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하였으나, 과거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적 건축<sup>2)</sup>의 탈피를 위한 몸부림일 뿐, 현재의 젊은 건축가들이 행하는 선축 스스로의 발전모색을 위한 신선한 활동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4.3그룹은 그러한 자기참조적 활동을 통해 건축계를 향한 비판은 있었으나, 젊은 건축가는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즉각적 소통방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중 또는 여러 건축가들과 소통하면서 작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2) 이종건, 이론과 이념상의 식민화, 1995

## 5. 결 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젊은 건축가들은 신선한 사고와 발전적인 시퀀스를 통하여 건축을 실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건축가들이 젊은 건축가로서 기성 건축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가까운 미래의 한국 건축은 어떠한 상황으로 흐를 것인가에 관한 궁금증은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를 통하여 본 연구를 결론짓고자 한다. 첫째, 젊은 건축가들은 유학을 통하여 다양한 곳에서의 건축수학으로 보다 풍성한 건축의 화두와 프로세스 및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는 보다 발전적인 건축의 생성과정과 그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젊은 건축가는 현재 매우 다수가 존재한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과정에서 이들은 심사하는 기성 건축가들이 오히려 젊은, 새로운 양상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뉴욕건축연맹에서 선정한 젊은 건축가의 사고와 한국 젊은 건축가의 사고가 다를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2.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가의 다채롭고 창발적인 사고 과정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방식이 우리가 이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기성과는 달리 새로운 신진 건축의 면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렇다하여 현 한국 젊은 건축가들의 건축방법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과거 4.3그룹의 모습에 이들을 투영해 본다면 보다 진보적인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개개의 건축적 철학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특히 와이즈 건축과 삶것 건축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스며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채롭다. 이것이 이제는 대중화 되고 보다 공공적 예술 가치로서 여느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젊은 건축가, 건축을 이야기하다. 2010 젊은 건축가상, 홍디자인 : 홍시커뮤니케이션, 2010.
2. 이종건, 이론과 이념상의 식민화-4.3그룹과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역사학회 제4권 2호, 1995.12
3. 민현식, 4.3그룹 건축전, 그 논의의 확장파 지속을 위하여, 건축역사학회 제1권 2호, 1992.12
4. 이주연, 모호한 이종주; 낭만과 전위에 대하여 - 4.3그룹이 남긴 것, 건축문화, 2001.6
5. 건축문화 2011.5

6. 조호건축 <http://www.johoarchitecture.com/>
7. 바우건축 <http://www.bauarchitects.com/>
8. 아틀리에 리옹 서울 <http://www.lionseoul.com/>
9. 와이즈건축 <http://www.wisearchitecture.com/>
10. 삶것건축 <http://www.lifethings.in/>

논문접수일 (2013. 05. 21)

심사완료일 (2013. 06. 05)

게재확정일 (2013. 06. 10)